



수입중계의 사후관리제도 개선 건의

— 사후관리 제외 품목으로 —

본회는 관세감면 수입중계의 사후관리제도의 개선에 관한 건의문을 농수산부에 제출했다.

현재 각 농장에서 중계수입시 관세감면 또는 분할납부 물품 사후관리사무 취급요령에 의거 5년간 사후관리를 받고 있으나 현재 중계의 경제적수명이 18~20개월 밖에 되지 않고 대가축과는 달리 어린 병아리의 수입 후

육추 중 질병 등의 사유로 숫자의 감소는 물론, 한중계의 사육과정중 시설의 합리적인 운영과 방역상 농장간 이동의 불가피성 등의 이유로 인해 사후관리제도의 개선을 건의한 것이다.

이에 농수산부는 앞으로 사후관리제외 물품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지로 하는 협조의 퇴를 재무부에 제출한 바 있다.

고등감별사 스페인 취업차 출국

— 배상중, 백희수씨 마드리드에 —

본회 스페인지부(지부장: 최재영)의 초청



으로 고등감별사 배상중, 백희수씨가 지난 6월 17일(수) 오후 대한항공편으로 김포공항을 떠났다.

올들어 첫번째로 해외취업에 나선 두 감별사는 스페인 마드리드에 취업을 하게 될 예정이다. 본회는 금년중으로 이종열씨등 15명 정도를 해외에 더 파견할 계획으로 있으며 본회 스페인지부등 해외감별사들로부터 초청장을 받아 준비중에 있다.

이를 위해 본회 감별분과 위원회는 앞으로 해외취업은 본회에서 일괄 처리 해외취업 창구를 일원화할 예정이다.

현재 스페인에는 한국인 감별사가 20명이 있으며 유럽전역과 미국을 합치면 200여명의 한국인 감별사가 해외에서 활약중에 있다.

개발농지 계사부지 용도변경 불가

—해당개발농지의 보전등 한도내에서는 가능—

농지확대개발 촉진법에 의하여 조성된 농지를 축사(계사) 부지로 용도변경할 경우 개발농지의 전체면적의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회는 회원의 질의에 의해 농지확대개발 촉진법에 의해 개간된 토지에 축사(계사)를 건축하고자 할때 용도변경가능면적에 대한 건축 가능범위를 농수산부에 질의한바 ‘개

발농지의 용도변경제도등 법률로 규정한 본래 목적은 허가당시의 용도구분(농경지, 목초재배지, 다년성식물 재배지)을 상호변경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해당개발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부대시설의 변경 또는 신규설치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은바 있다.

감별분과위원회 단합대회 개최

— 6월 27일 경기도 현리일원에서 —



본회 감별분과위원회(위원장: 정채인)는 회원들의 친목도모와 자연보호운동책의 일환으로 지난 6월 27일 경기도 현리에서 단합대회를 개최했다.

전국의 감별사 30여명이 참가한 이날 단합대회는 회원들의 친목도모는 물론 자연보호운동을 위해 주변 환경의 미화정리를 하는 한편 특히 이날 모임에서는 감별사의 해외취업 창구일원화를 위해 광범위한 의견교환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본회 부산경남지부 감별분과의 안규태 감별사가 참석자전원에게 기념타올을 기증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느끼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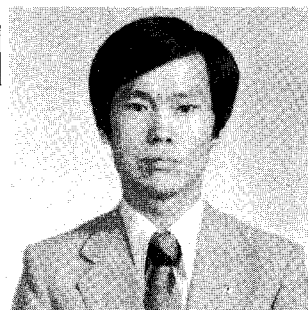
축산생산자 단체장 농수산부축산국 방문

본회 이상윤회장직무대행은 낙농 비육협회장, 양돈협회장등 각 생산자 단체장들과 함께 지난 7월 1일 오후 농수산부 축산국을 방문했다.

이자리에서는 조세감면연장에 따른 제반문제점과 축산업계 현안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본회인사

본회 닭경제능력검정소 소장에 李正來씨(진대축대졸, 전 계유부 화장 근무)를 기용.



(박정래 검정소장)